

취 임 사



존경하옵는 선배, 동료, 후배 회원 여러분.

제 41대 대한화학회 회장이 되기 위한 과정은 참으로 힘든 긴 여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저로서는 과분할 만치 고귀한 명예를 얻었고 이에 못지않은 무거운 사명감을 껴안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저를 선택하신 뜻을 잘 받들어 회장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임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저는 선거기간동안 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대학, 연구소 및 산업체 대부분을 방문하면서 학회운영에 유익한 다양한 정보 및 정책 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앞으로 학회운영에 있어 확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반갑게 맞아 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신 회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화학회는 그동안 꾸준히 발전하여 국내 학회 중 최상의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학회유지 차원에 목표를 두다 보니 보수적인 학회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부터 국내 최대 학회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대내외적으로 보다 진취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국민 대중 속으로 파고드는 '화학의 대중화' 운동을 시작하였고, 학회 운영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였습니다. 사실 예전에 없었던 '선도적이고 역동적인 학회' 로 그 모습을 달리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를 현재 우리 화학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적인 도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화학회는 학회만을 위한 학회가 아니고 '국민과 함께하는 학회, 궁극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학회'가 되어야 합니다. 화학인만을 위한 학회가 아니고, 국민에게 화학을 홍보하여 생활 속에 화학이 자리 잡아야만 우리 화학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보다 멀리 보는 큰 틀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 모두의 단합된 참여를 도모해야 합니다.

2007년도 운영팀은 학회 운영의 모토를 '함께하는 학회, 미래로 세계로!'라고 정하고, 앞에 서서 회원을 이끌고, 회원에 다가서서 보살피는 학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하였습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두고자 하는 바가 '지부활성화 정책'입니다. 본부 위주의 활동은 그 효율성에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본부의 화학정책에 지부가 참여하여 결과적으로 회원 모두가 함께 활동하는 단합된 학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지부간의 경쟁체제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 희생적으로 학술활동을 이끌어 가는 소규모 학술 모임에도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분들의 노력이 바로 학회활동의 원동력이 됩니다. 훌륭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선도연구자에게 박수를 보내고, 아울러 어려운 연구여건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연구자에게도 용기와 격려를 드리고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다함께 나아가야만 큰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학회 본부에 속해있는 제 위원회도 보다 활성화해야 합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화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화학이 국민생활에 스며들기 시작하려면 우리 학회가 보다 성숙한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서야 합니다. 초,중등

및 화학전공 학생들이 보다 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화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학부모가 화학의 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홍보해야 합니다. 이제 화학회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학회 현안문제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학회 기금의 활용, 회장 및 이사 임기 임기연장을 통한 전문화, 등등 제 현안을 회원의 의견을 모아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책의 효율화는 학회 미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회원 모두의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금년도 춘계 학술대회는 서울 COEX에서 '화학전공 학생과 산업체 CEO와의 대화' 를 이벤트로 하여 학생과 산업체를 연결하는 행사를 갖게 됩니다. 전국의 모든 화학관련학과 대표학생을 참여하게 하여 미래의 화학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EXCO에서 열리는 추계 정기 학술대회는 국내 학회사상 처음으로 100회를 맞게 됩니다. 국내 최대 선도학회로서 국내외에 그 위상을 드높이는 행사를 수립하겠습니다. 학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해 다양한 행사를 벌였던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국민과 함께 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대 국민 행사와 젊은이들을 화학세계에 끌어 들일 수 있는 미래 지향적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회원 모두가 자축하면서 국민에게 성큼 다가서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뜻있는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07년도는 우리 화학회가 본가인 한국화학회관으로 되돌아가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 매우 의미 있는 해가 됩니다. 과총에서의 업무는 나름대로 편리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남의 집에 세 들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공간을 넓히고 새 단장한 화학회관에서 여러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 대가 없이 오직 화학회의 발전을 위해 즐거이 헌신하시는 전 민제 화학회관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 여러분,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관계 인사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화학회관이 여러분이 즐겨 찾아 답소하고 의견을 나누는 만남의 장소가 되도록 꾸며 나가겠습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2007년도는 600년에 한번 씩 있는 황금 돼지의 해 입니다. 배불러 흐뭇해하는 돼지의 민족스런 표정에서 우리 회원 여러분이 교육과 연구의 즐거움에 만족해하는 모습일 때를 상상해 봅니다. 우리 과학인 스스로의 노력과 헌신이 앞서야 함이 필수적이지만, 과학발전을 국가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화학을 비롯한 기초과학(저는 개인적으로 기본과학이라고 부릅니다만) 육성에 주안점을 두는 새 정부가 탄생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바로 우리를 지켜줍니다.

저희 운영팀은 앞서 약속한 바와 같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그 노력이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공동 목적을 위하여 마음을 열어 주시고 시간을 쪼개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도 회원 여러분과 함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나아갈 길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도에도 회원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가내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월 1일 신임회장 차진순